2017. 7. 20. (목) 언론보도

서울신문
2017년 07월 20일 (목)
12면 종합

DMZ '두 바퀴 축제'

9월 2일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을 따라 달리는 세계인의 자전거 축제 '투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7 국제자전거대회'가 열린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올해 국제자전거대회는 세계사이클연맹이 공인하는 제2회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와 자전거투어, 대한자전거연맹의 마스터스 대회 등 3개 대회로 나눠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내외 청소년 15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는 9월 3일 경기 고양시를 출발해 연천~강원 화천~인제군을 가로질러 6일 고성군에 도착하는 403.5㎞의 동서횡단 코스로 치러진다. '투르 드 디엠지 2017 강화 자전거투어'와 '투르 드 디엠지 2017 마스터스 대회'는 국내 자전거 동호인들을 위한 행사다. 2일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화 자전거 투어가 강화군 아시아드경기장을 출발해 교동도를 돌아오는 69.6㎞ 구간에서 열린다. 마스터스 대회는 3일 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가 시작한 후 고양~인제군 구간(357㎞)에서 5일까지 진행된다. 일반인 300여명이 비무장지대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달릴 예정이다. 이번 자전거 축제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5.4 X 16.3 cm

중부일보
2017년 07월 20일 (목)
04면 정치

'뚜르 드 DMZ' 국제자전거대회 9월 개막

세계인의 자전거 축제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7 국제자전거대회'가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에서 개최된다.

행정자치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해 제1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세계사이클연맹(UCI) 공인대회로 개최되는 제2회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와 동호인대회, 대한자전거연맹 마스터즈대회로 구성된다.

'Tour de DMZ 2017'제2회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청소년대회로써 오는 9월 3일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해 연천군과 강원도 화천군, 인제군을 가로질러 6일 고성군에 도착하는 403.5km 코스의 동서횡단 경기로 진행된다.

UCI 규정에 따라 세계 1위부터 25위까지 국가가 출전 자격을 갖게 되고, 대회 성적은 국가별 국제대회 출전인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our de DMZ 2017 강화 자전거투어'는 강화군 아시아드 경기장을 출발, 교동도를 순환하는 69.6km 코스에서 9월 2일 개최되며,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올해는 인천광역시가 새롭게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가하고 강화~교동도 코스가 추가됨에 따라 서해에서 동해까지 비무장지대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

'Tour de DMZ 2017 마스터즈 대회'는 5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에서 강원도 인제군까지(357km) 진행된다. 김재득기자

17.2 X 6.6 cm

경기신문
2017년 07월 20일 (목)
01면 종합

'뚜르 드 디엠지 국제자전거대회' 9월 2~6일 개최

비무장지대(DMZ) 및 접경지역에서 오는 9월 2~6일동안 세계인의 자전거 축제인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7 국제자전거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제2회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와 '강화 자전거투어', '대한자전거연맹 마스터즈대회'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9월 2일에는 자전거 동호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강화 자전거투어가 진행된다.

강화군 아시아드 경기장을 출발해 교동도를 순환하는 69.6km 코스에서 개최, 엠티비 로드(MTB Road)와 로드 사이클(Road Cycle) 부문에 약 1천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9월 3~5일에는 고양시에서 강원도 인제군까지 357km를 달리는 마스터즈 대회가 열리고, 30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하게 된다.

도는 이번 대회가 이념과 세대, 국경을 넘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스포츠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대회참가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자전거연맹(☎02-420-4247~9)에 전화 문의하거나 홈페이지(bikelife.cycling.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연우기자 27yw@

11.7 X 7.6 cm

인천일보 2017년 07월 20일 (목)
17면 스포츠

자전거 타고 비무장지대 씽씽

9월2~6일 '뚜르 드 DMZ'

세계인의 자전거 축제인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7 국제자전거대회가 오는 9월2일부터 6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와 행정자치부, 인천광역시,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 주관으로 제2회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와 강화 자전거투어, 대한자전거연맹 마스터즈대회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청소년대회로서 오는 9월3일 고양시를 출발해 연천군과 강원도 화천군, 인제군을 가로질러 6일 고성군에 도착하는 403.5㎞의 동서횡단 코스로 국내외 25개 팀 150여명의 청소년 사이클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와 함께 개최되는 강화 자전거투어와 마스터즈 대회는 국내 자전거 동호인들을 위해 마련한 대회로 9월2일 자전거 동호인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강화군 아시아드 경기장을 출발해 교동도를 순환하는 69.6㎞ 코스에서 엠티비 로드(MTB Road)와 로드 사이클(Road Cycle) 부문에 약 1,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9월3일 국제청소년대회 참가자가 출발한 후, 동일한 코스를 달리는 마스터즈 대회는 5일까지 3일간 고양시에서 강원도 인제군까지(357㎞) 진행되며 이 대회에는 30개 팀 300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이번 대회는 이념과 세대, 국경을 넘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스포츠축제로 참가자들 모두 대회를 통해 분단과 통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대한자전거연맹(02-420-4247~9), 홈페이지(bikelife.cycling.or.kr).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6.9 X 20.1 cm